

전북, 올 시즌 한 경기 최다골

K리그1 대구FC와 31라운드서 바로우 2골 1도움
한교원 2골 활약 5-0 승리... 조규성, 군 전역 후 복귀

프로축구 K리그1(1부) 전북 현대가 군에서 전역 복귀한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과 함께 5경기 만에 승리를 일켰다. 동시에 5골을 몰아치며 올 시즌 한 경기 최다골 타이틀을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 10일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2 31라운드에서 바로우, 한교원 박진섭의 소나기 골에 힘입어 5-0 대승을 거뒀다. 한 경기 5골은 올 시즌 한 팀 최다골과 타이달. 지난 8월14일 제주 유나이티드가 포항 스틸러스에 5-0 완승을 거둔 적이 있다. 최근 4경기에서 3무패로 승리가 없었던 전북은 5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맞았다. 15승(10무패 승점 55)째를 신고한 전북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울산 현대(승점 62)와 승점 차를 7로 좁혔다. 울산은 11일 포항과 동해 안대를 펼친다. 바로우가 2골 1도움, 한교원이 2골로 대구 공략에 앞장섰다. 지난 7일 상무에서 전역한 조규성도 선발로 출전해 후반 22분까지 67분을 소화했다. 공격포인트는 없었지만 적극적인 공격 기담과 전방 압박으로 존재감을 뽐냈다. 그의 존재로 상대의 수비 부담을 가중시켜 전북 공격의 전방적인 숨통을 트게 했다.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12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났지만 잔뜩 푹이 오른 전북의 침을 막을 수 없었다. 전북은 경기 시작 10분 만에 바로우가 역습

기회를 살려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42분에는 김진수의 크로스를 박진섭이 예리하게 헤더로 연결해 대구의 골네트를 갈랐다. 전북이 2-0으로 앞서며 전반을 마쳤다. 후반 6분 바로우의 추가골로 3-0 리드를 잡은 전북은 17분과 21분 한교원의 연속골로 승리를 확실했다. 강원FC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경기에서 양현준의 멀티골 등을 앞세워 4-0으로 승리했다. 파이널A(1~6위) 진출을 위한 경쟁 중인 강원은 12승3무3패(승점 42)를 기록 6위로 올라섰다. 전반 양현준의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은 강원은 후반 20분 양현준 31분 케빈, 39분 갈레오의 릴레이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FC서울의 대결은 2-2 무승부로 끝났다. 수원FC가 1-2로 패색이 짙었지만 종료 직전 김현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무승부를 이끌었다. 파이널A 진출을 노리는 수원FC는 승점 41로 7위, 서울은 승점 38로 8위에 자리했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는 서진수와 조나란 링의 골에 힘입어 김천 상무를 2-1로 꺾고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12승(9무10패 승점 45)째를 거둔 5위 제주는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47)와 승점 차를 2로 좁혔다. /뉴스1



프로축구 전북현대 한교원(왼쪽)과 조규성.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국회 예산심사 반영 '총력'

황인홍 무주군수, 지난 7~8월 여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면담
국힘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면담서 내년부터 추진 가능토록 지원 부탁

무주군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겨진 만큼 정치권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 사업의 가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가 최근 국민의 힘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돼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앞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군은 정치권의 지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 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당위성과 논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나란히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공약화에도 성공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올림픽 종목에서 일본의 가라테 등 거센 도전을 원천 차단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 공략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거자

진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 '전국5위'

전국 229개 시·군 중 농어촌형 부문... 도내 유일 인센티브 혜택

진안군체육회가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평가는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발전과 성과 달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체육회 운영성과, 수혜자 만족도, 구성원 업무성과 등의 성과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도시형, 농촌형, 농어촌형 등 도시 형태에 따라 실시되는데, 진안군은 농어촌형 그룹으로 지난 2020년도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도 88.98점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하여 전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인센티브 혜택



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안군체육회관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정읍스포츠클럽, 향후 3년동안 국비 지원받아
지자체 공공 체육시설 우선 수의계약 등 혜택

(사)정읍스포츠클럽(회장 윤준호)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유능한 지도자를 활용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읍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한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지원사업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총 107개소가 지정을 신청했다. 정읍스포츠클럽은 시설의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도와 인적 지원, 프로그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스포츠클럽은 지자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수의계약과 사업료 최대 100% 감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또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와 연계한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성별·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전문선수 발굴 비인기 종목 육성 등 정읍시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클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한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읍스포츠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제6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